

# 병원건축상식

## Hospital Construction Common-sense

홍창표 Hong, Changpyo (연세의료원 건축파트장)

병원은 가장 복잡한 건물 중 하나이다. 병원이 잘 작동하도록 건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건축가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두 집단의 의사소통 과정에 '상식'으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연히 알 거라고 오해하여 설명을 누락하거나 자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축가의 상식을 건축가는 의료진의 상식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1. 상식

#### 1.1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다섯 가지의 감각을 타고난다고 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다섯 가지 감각이 서로 교차하는, 일종의 '공통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상식이 영어로 Common Sense가 되었다.

#### 1.2 토머스 리드

토머스 리드는 자신의 저서 [인간 지성에 대한 시론]에서 상식은 사회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상식의 범위가 '공통 감각'에서 '공동체의 지성'으로 확장되었다.<sup>1)</sup>

#### 1.3 위르겐 하버마스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를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그때 그때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소통 행위는 단지 명시적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명백히 드러나지 않지만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엄청난 양의 관념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현상학적인 철학과 사회과학의 전통을 따라 '생활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행위자들은 객관적, 사회적, 주관적 세계 안에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유하는 생활세계에 의존한다.<sup>2)</sup> 그들은 상황에 대한 공동의 정의에 기초해서 그들의 행위를 조정한다.

1) 고려대학교 학술소통연구회, [소통-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어], 고려대학교출판부

2) 애리 브랜트, [이성의 힘], 동과서

## 2. 병원건축상식

### 2.1 건축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과도 건축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집'이라는 건물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법적 사항 및 기술적인 내용을 모두 전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실제로 건축을 진행해보면 그제서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2.2 병원

병원은 복잡한 건물이다. 임상과별 외래 및 중앙 진료부터, 병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임상과가 서로 견제하듯 경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생을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병원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이 병원 내부의 생활세계와 점진적으로 굳어진 그 병원만의 상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2.3 건축병원상식 극복 방법

건축과 병원 사이에서 상식의 차이로 인해 끊어진 의사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 시설관리자'이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축 교육을 받고 실무 경험을 갖춘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병원의 생활세계를 공유하고 있다. 의료진이 건축가에게 요청하는 내용 중 누락 되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반대로 의료진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가의 의견을 병원에 전달할 수 있다.

## 3. 병원 시설관리자의 역할

### 3.1 언어 통역



[그림 1] 병원 시설관리자의 언어 통역

병원 시설관리자는 건축가와 의료진의 사이에서 정확한 통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진의 요구 사항이 건축가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건축가의 기술적인 내용을 의료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이 부재할 경우 의료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공사가 누락되거나,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공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때로는 고가의 자재가 사용되어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 3.2 도면 설명

설계 단계에서 도면이라는 건축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의료진이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도면이라는 건축 언어를 일반 언어로 풀어 의료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병원 시설전문가이다.

### 3.3 품질, 공사 기간 관리

공사의 품질과 공사 기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내부 시설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사를 진행하는 의지와 공사비만 있으면 내부 시설관리자가 없어도 공사는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두가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셰프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듯, 누구나 건축을 할 수 있지만 병원 시설관리자의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훨씬 높은 수준의 건축이 가능하다.

## 4. 결론

모든 병원에 내부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병원 건축의 상식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이 책에 담았다. 읽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연한 상식들이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의사소통의 단절을 낳는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의료진에게는 건축의 상식을, 건축가에게는 의료진의 상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